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정보를 모으는 습관은 평소의 연습을 통해 단련된다.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얼마나 충실히 모으고 머릿속에서 정리하는지가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보 수집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연습 때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함께 연습하는 파트너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체력의 변화, 최근의 상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가? 오늘의 움직임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감지할 수 있는가? 동료의 변화나 움직임의 좋고 나쁨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주변을 잘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관찰하는 힘이 바로 정보 수집의 시작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런 관찰력이 없다면 경기 도중에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될까?

Q 정보를 모으는 습관이 없다면 경기 중에 어떤 상태가 될까?

- 1 자신의 플레이나 샷에만 시선을 고정한다
- 2 상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플레이에 일희일비한다
- 3 체력이 소모되면서 주변 정보가 머리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경기 중에 주변을 관찰하는 데는 당신의 기술과 체력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한 당신의 눈앞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모으고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모은 정보 중에서 경기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것을 머릿속에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강한 상대에게 이길 수 있다. 그럼 경기 전에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자.



동호인대회에 출전하였을 때에 “아니 인조잔디 코트네?”라고 놀란 적이 있는가? 자기가 출전하는 대회장의 코트 표면이 하드인지, 클레이인지, 인조잔디인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코트가 새로 깔렸는지, 바닥이 닳은 낡은 코트인지, 또는 모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모래가 균일하게 깔려 있는지 등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간다면 변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물론 사전에 그곳에서 실제 연습경기를 해보면 더욱 좋다.

코트의 만들어진 형태도 주의해서 관찰하자. 코트가 가로 형태로 쪽 붙어 있는 곳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경기 중에 옆 코트에서 공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소한 것도 정보로 삼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위 환경을 확인해 둔다.

코트 표면(종류와 상태)

동호인들이 주로 접하는 코트는 하드, 클레이, 인조잔디이다. 모래가 들어 있는 인조잔디의 경우 새로이 깎 표면이 닳은 것에 비해 공의 속도가 느리다. 하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코트는 구속이 늦고 낡은 코트는 공이 미끄러지듯 빠르게 튕겨 나간다. 클레이코트는 흙이 많이 섞였는지, 물기를 얼마나 머물고 있는지 등이 속도와 바운드에 영향을 주므로 사전에 체크한다. 이것만 알아두어도 플레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기후(풍향과 태양의 위치 등)

풍향과 태양의 위치는 경기에 큰 영향을 준다. 바람이 불어 오는 쪽과 불어가는 쪽에 대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순풍은 공의 속도를 높여주고 공이 떠오르기도 쉬운 반면 역풍은 공이 바람에 밀려 위력이 약해지게 된다.

코트의 배치(옆 코트와 나란히 붙어있는지 확인)

옆 코트에서 공이 들어오면 경기가 중단되어 포인트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 긴장하지 않고 빠르게 기분 전환할 수 있다. 코트가 옆으로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은 경기 중에 옆 코트로부터 공이 들어오는지를 신경 써야 한다.

워밍업 시간에 관찰해야 할 상대의 특징은?

평소 사용하는 손(오른손 또는 왼손)

오른손과 왼손 사용자의 샷의 궤도는 큰 차이가 있다. 평소 사용하는 손의 움직임은 파악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오른손잡이가 많은 만큼 왼손 사용의 경우를 경험하기 어려우므로 의식적으로

왼손잡이인 사람과 함께 연습할 기회를 찾아보길 권장한다. 어떤 공의 궤도가 날아올지 제대로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백핸드(양손)

상대의 백핸드가 양손인지 한손인지를 눈여겨본다면 경기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된다. 상대가 양손 백핸드를 구사한다면 높은 위치에서 강타를 잘 하고 몸과 떨어진 위치에서 공을 치는 슬라이스 계열의 샷은 그다지 구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도 잘 기억해 두자.

백핸드(한손)

한손 백핸드는 양손과 반대로 높은 위치에서의 강타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으며, 로브 등의 기술을 잘하는 선수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이므로 경기 중에 상대의 플레이를 보아가면서 계속 확인해본다.

상대의 구질(스핀 혹은 플랫)

랠리를 주고 받을 때, 상대가 서비스 리턴할 때에 꼭 파악해야 할 것이 구질이다. 스피너를 많이 거는 높은 궤도의 공이 많은지, 아니면 플랫 계열의 낮은 궤도의 공이 많은지, 백핸드를 톱스핀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주로 슬라이스를 치는 지 등을 확인해두면 좋다.

경기 전에 습득한 정보는 경기 중에 추가로 얻은 정보와 맞추어 조정한다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워밍업 때는 스트로크, 발리, 스매시, 서브(리턴)의 순서대로 몸을 푸는 데 이 시간을 통해 상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단 시간이 부족한 동호인대회에 나가면 주축축이 경기를 빨리 진행시키기 때문에 서브 연습만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서브와 리턴 연습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야 한다.

‘경기에 이기기 위한 정보 = 상대의 약점을 찾아낸다’는 의미도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양손 백핸드 플레이어 = 슬라이스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를 하다보면 양손 백핸드 중에도 한손 슬라이스를 잘 하는 선수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보는 경기 전과 중에 계속 수집 정리하며 변경해 나가야 한다.

복식 파트너와의 정보 공유에서 주의할 점

복식의 경우 워밍업 때 자신의 정면에 있는 상대와 마주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한쪽의 상대와 마주할 기회가 없어진다(있다면 서비스의 리턴 연습 정도일 것이다). 랠리 연습을 해나가면서 상대에 대해 항목별로 체크할 수도 있으나 이런 때야말로 두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상대의 약점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주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 “저 선수는 백핸드가 약해”라는 확정적 언어로 전달하면 그 전달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둔갑해버리기 시작한다. 파트너가 경기 중에 실재와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보의 신뢰성은 떨어지고 혼란만 야기될 뿐이다. 파트너 간의 연계가 중요한 복식 경기에 있어서 신뢰성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정보를 전달할 때는 개인의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객관적 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